

나주교육청, 강감찬장군과 '고려어벤져스' 역사교육 교류길 열어

관내 초등학교 대상 고려역사 교육자료 3종 제공 등 지역 문화예술진흥·고려 역사교육 활성화 위한 상호협력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길)과 관악문화재단(대표이사 차민태)은 2일 지역 문화예술진흥 및 고려 강감찬 역사교육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관내 초등학교 대상 고려역사 교육자료 3종(영상, 키트, 교보재) 제공 ▲강감찬 고려역사 키트 및 교안자료 추가 제작 시 우선 지원 ▲고려역사 공동 홍보 및 고려역사 업무교류 확대 ▲지역 문화예술진흥 및 고려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의 상호협력력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나주교육지원청은 2020년 관악문화재단으로부터 귀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명재상 강감찬 장군의 피규어 자료(학생 제작용)는 물론 영상교육콘텐츠 '고려어벤져스' 5부작을 제공

받아 고려역사 교육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다. 나주 관내 초등학교 18교에서 이 교보재와 영상교육자료를 신청하여 역사교육에 활용하였으며, 자칫 지루할 수 있는 고려 역사교육에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넣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평가에 힘입어 관악문화재단과의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관내 초등학교들에게 창의적이고 다양한 고려역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하는 강감찬 귀주대첩 1,002주년이 되는 해로, 강감찬의 생가터가 있는 강감찬의 도시 관악과 고려 현종의 피난처였던 나주와의 협력은 더 의미가 깊다.

관악문화재단은 "관악 특성화 유튜브 이야기 콘텐츠"사업의 일환으로 '고려어벤져스' 5부작을 개발하였으며, 고려 명장 강감찬 장군의 피규어를 제작하여 고려 역사교육에 힘쓰고 있다. 특히, 영상콘텐츠는 68,000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 콘텐츠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고려사 전문가의 면밀한 고증을 통해 학생들이 느끼기에 다소 딱딱할 수 있는 내용들도 알기 쉽고 흥미롭게 풀어내었다.

김영길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은 "이번 나주교육지원청과 관악문화재단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고려 현종의 피난처였던 나주와, 거란 침입을 막고 귀주대첩을 이룩한 명장 강감찬 장군의 도시 관악이 고려역사를 매개로 함께 협력하고 교류함으로써 나주교육 및 역사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관악문화재단 차민태 대표이사는 "이번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과 관악문화재단 간의 MOU체결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고려 역사



를 알고 관심 가질 수 있길 바라며, 관악문화재단과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의 물리적 거리를 넘어서 교육으로 하나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기대합니다."고 전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어 있던 교육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동취재본부



5·18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 프로젝트 광주 교원단체들, '어린이 시, 노래가 되다'

광원도부터 제주도까지 전국 초등학교 참여...교사 20명 작곡

광주지역 교원단체 '광주실천교사모임'·'전교조 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이 5·18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 프로젝트 '어린이 시, 노래가 되다' 추진 중 노래 만들기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어린이 시, 노래가 되다'는 어린이의 시를 노래로 만들어 5·18민주화운동의 뜻을 되새기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3월26일까지 노랫말로 사용될 시를 모집한 결과 강원도·경기도·경상도·전라도·충청도·제주도 등 전국 각지에 소재한 47개교 73학급이 참여해 총 1,407수의 시가 모였다. 지난 3월27일부터 전국 교사 20명이 노래 만들기 작업에 참여해 27곡의 노래를 제작 완료

했다. 어린이의 시를 활용해 완성된 노래는 유튜브 채널 '어린이 시, 노래가 되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rpHJf9aM1hu2EFP4p8FHgw>)에서 확인 가능하다. '어린이 시, 노래가 되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교사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어린이들의 시를 모아 노래로 만들기로 했다.

이번에 만들어진 노래 중 반응이 좋은 곡은 오는 5월 진행될 '뮤직비디오 만들기 챌린지'의 곡으로 선정되며, 이후에도 '미니콘서트' 등 다양한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최은희기자

영광교육청,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연수

2021년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방과후학교 추진 체계 및 운영 방향 등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허호)은 2일에 관내 초·중·고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1년도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매뉴얼 전달연수를 실시했다.

연수내용으로는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업무 효율화를 위해 2021년 개선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 전반에 대해 전달하고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2021년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 △방과후학교 추진 체계 및 운영 방향 △회계관리 △2021년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시 유의사항 △방과후학교 분야 청렴도

향상방안 등이다. 연수에 참석한 한 교사는 "방과후학교 및 돌봄 업무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학교 현장에서 만족도 높은 방과후학교와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장(허호)은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적성 개발을 위하여 힘쓰는 선생님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방과후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발



열체크, 환기시설 점검, 적정거리두기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이번 연수를 진행했다.

영광=서희권기자

전남교육청, 2021대입현장지원단 발대 맞춤형 진학지원 시작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3일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대강당에서 2021대입현장지원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 업무를 시작했다.

전남교육청 2021대입현장지원단은 학교별로 추천을 받은 진로진학 관련 전문가 232명으로 구성됐으며, 권역별진학지원센터 상담교사단 4개 팀과 일반고 현장 지원 및 대입관련 자료 개발을 위한 5개 연구팀으로 조직을 꾸려 활동한다.

대입현장지원단은 앞으로 도내 일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진학프로그램, 권역별진학지원센터 맞춤형 상담 활동을 하게 된다.

지원단은 지난해에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권역별진학지원센터 맞춤형 상담 2천여 건, 현장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진로진학프로그램 120여 회를 진행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시키는 데 기여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날 발대식에 이어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입

현장의 변화에 따른 컨설팅 기법과 진로진학 상담프로그램 등에 대한 연수도 진행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현장을 직접 찾아 "지난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군분투해주신 대입현장지원단을 비롯한 전남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올해는 입학사정관 출신 대입지원관을 채용해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진학지도의 질을 더욱 높일 것이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